

[보도자료] 쿠팡, 임직원 가족 150여명 초청 "엄마아빠는 최고 멋진 사람" 화합의 장 마련

2023. 12. 15.



강한승 대표가 가족 행사 참석자들과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쿠팡과 자회사 임직원 가족 150여명 참석
- 자녀 둔 사내커플부터 장기근속 가족까지 일터 소개하고 문화체험
- 강한승 대표 “쿠팡이 멋진 회사 될 수 있었던 건 엄마와 아빠 덕분 고마운 마음으로 초대”

2023. 12. 15. 서울 - 쿠팡이 연말을 맞아 서울 송파구 잠실 오피스에서 쿠팡과 자회사 임직원 가족을 초청해 화합하는 장을 마련했다.

쿠팡은 15일 ‘엄마 아빠 회사는 처음이지?’ 행사를 14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임직원과 자녀 150여명이 참석한 이 행사는 쿠팡의 성장 주역인 엄마 아빠의 일터를 자녀가 직접 경험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유대감을 강화하고자 기획됐다. 이를 위해 최근 쿠팡을 비롯해 쿠팡폴필먼트서비스 등 자회사에서 4~7세 자녀를 둔 임직원들에게 참석 신청을 받았다. 모집 시작 첫날부터 사연이 담긴 신청서 수십 개가 쏟아졌다. 사내 커플로 만나 결혼에 골인한 부부, 장기근속 직원 등 “자녀에게 부모의 일터를 꼭 보여주고 싶다”는 다양한 사연의 52개 가정이 선발됐다.

이날 임직원 자녀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보내는 ‘깜짝 영상 메시지’를 시청했다. 임직원들은 쿠팡에서 로켓배송 혁신을 이끌면서 느낀 자부심과 고마움을 자녀에게 표시했다. 강한승 쿠팡 대표는 환영사에서 “어린이 여러분의 엄마, 아빠 덕분에 쿠팡이 이렇게 멋진 회사가 될 수 있었고, 그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 초대했어요”라며 “엄마 아빠에게 정말 감사해요.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라고 말했다.

임직원 자녀들은 환영사에 이어 장난감 블록으로 쿠팡카 만들기 놀이를 했다. 자녀들은 행사장 곳곳에 걸린 로켓과 쿠팡카 이미지를 보고 “로켓배송이다” “쿠팡카를 볼 때마다 아빠가 생각났는데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잠실 오피스 투어·쿠킹클래스·미술 클래스에 참여하고 마술쇼를 관람했다.

임직원들은 “자녀에게 빠르게 성장하는 쿠팡의 일터와 문화를 보여줄 수 있어서 뿌듯했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팀에서 일하는 윤여선씨는 “2013년부터 10년간 쿠팡에 근무하며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가졌다”며 “쿠팡을 좋아하는 아이에게 엄마가 일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보여줄 수 있어 기뻐다”고 말했다. 창원 1캠프 리더 박기훈씨는 “쿠팡카만 보이면 아빠를 찾는 아이들에게 직접 쿠팡 잠실

오피스를 방문할 기회를 줄 수 있어 뿌듯하다”고 했다.

이번 가족 초청 행사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서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을 담당하는 ‘쿠팡렌드 커뮤니케이션’ 팀이 주최했다. 지난 2020년 생긴 이 팀은 임산부 1대1 상담 등 다양한 제도 도입으로 양질의 일터를 만드는 데 힘써왔다.

쿠팡 관계자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준 임직원들과 그들에게 힘이 되어준 가족들이 추억을 만들고 쿠팡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강한승 대표가 아이들과 함께 장난감 블록을 만들고 있다.



행사 참석자 가족들이 미술 활동을 하고 있다.



행사 참석자 가족들이 마술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